

강북삼성병원 EHS파트는 환경, 보건, 안전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근무환경 개선, 직원 건강증진 등 병원의 안전보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FMEA 기반의 CQI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지원

안전보건 문화의 혁신을 이끈다

강북삼성병원 EHS파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강북삼성병원 EHS파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4년 차 부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EHS 업무를 바탕으로 ESG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EHS파트는 '최고의 실력'을 온기를 더하여라는 강북삼성병원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직원과 환자의 아픔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으며, 환경보호 및 환자과 직원의 건강증진,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EHS파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첫 번째 성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 안전, 시설, 건강, 환경, 방사능, 위험물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필수 이행 법령 52개와 하위 416개 항목을 정리하여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이를 전 부서에 배포하여 매월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이를 부서별로 정리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실무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업무를 파악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이행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52개 법령과 416개 이행 항목을 월별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현장에서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국진 파트장은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둘째, 잠재위험발굴 이벤트를 진행하여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환경에서 경험한 위험 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 시설과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직원들에게는 시상으로 커피 쿠폰, 스마트워치, 태프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건강검진과 안전사고 등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다 보면 허리-손목 부상 등 근골격계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 응대 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약물로 인한 선망 증세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도 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데이터와 안전사고, 근골격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보건관리자는 이와 같이 설명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수 만들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필라테스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건강을 케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화학물질 관리 혁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병원의 화학물질은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강북삼성병원 EHS파트는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관리자급 직원을 팀으로 구성하고, FMEA 기반의 CQI 활동을 통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모든 직원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비상대피 훈련을 진행하며, 화학물질 관리 매뉴얼과 표준작업절차서를 제작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학물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개선하여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하반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 FMEA 기반 CQI 활동’을 주제로 연구 발표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라고 조창현 보건관리자는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소량의 화학물질만 사용하거나 그 종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직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심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은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북삼성병원 EHS파트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했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일부 컨설팅에서는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안전 및 보건관리자들 역시 작업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며 조창현 보건관리자는 이번 컨설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EHS파트는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기장치 성능 저하와 구조적 문제로 인한 노출 우려가 있는 클린벤치는 구조 개선을 통해 노출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를 통일할 계획이다.

2025년, EHS파트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과 건강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안전보건 문화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병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성과가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 🍃

“
시민재해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
”

강북삼성병원 EHS파트

양국진

파트장



Mini Interview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지난 3년 동안 안전보건체계와 시스템을 잘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부분은 상당히 안정화되었고, 시민재해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의 특성상 시민재해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시민재해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어 환자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감축, 안전보건 데이터 기반의 작업환경 조성, 공사 안전 매뉴얼 및 지침 개정 등 환경, 보건, 안전 전반에 걸쳐 더 세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